"소금값, 예매·유통 등 체계적 대책 마련하라"

金지사, 주산지 책임감 강조…소비자 불안 해소 지시

함평지역 중심 '축산 ICT농생명밸리' 구축 검토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최근 소금값 폭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걱정이 큰 만큼 중간 유통단계 축소, 본격 생산 시기인 7월까지 예약 판매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해 "소금값 폭등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생산자협회가 소금값 폭등에 따른 비난을 걱정하고 수입 소금이 늘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시름에 잠겨 있다"며 "염업조합·생산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 소금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7월까지 예약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소금 부족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으로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전남이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축산업도 과학화·스마트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며 "전남으로 이전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함평을 중심으로 축산 정보통신기술 농생명밸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와 관련, 김 지사는 "각 실·국과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 시·도민의 호응으로 38만명이 가입해 100만명 목표 달성 전망이 밝다.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도정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라"며 "도민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도민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 활성화를 위한 남도장터유에스(US)몰 마케팅 강화 ▲각종 의례적 행사나 업무협약 등이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의미·가치 부여 등을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첨단소재부품산업 거점 '도약'

한국알프스, 286억 들여 생산시설 증설…年 700억 매출↑

하남산단에 연구개발센터 개소…80명 신규 고용 창출도

광주시가 첨단소재 부품 글로벌 산업의 연구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알프스㈜의 연구개발(R&D)센터 개소에 이어 첨단소재 부품 생산시설 증설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하남산단 한국알프스㈜ 생산시설 증설 준공식에 참석, 준공을 축하하고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과 김규남 한국알프스㈜ 대표이사, 박병규 광산구청장, 백인기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은 한국알프스㈜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알프스㈜와 생산시설 증설 및 연구개발(R&D)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은 생산시설 증설에 286억300만원, 연구개발(R&D)센터 구축에 162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연구원 등 80명을 신규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알프스㈜는 반도체 및 자동차 글로벌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첨단소재제품 생산시설의 투자 이행에 따라 건평 2천585㎡(782평), 연면적 5천603㎡(1천695평), 2층 규모의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한국알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파워인덕터 생산시설을 갖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가며 햅틱 모듈 등 첨단소재부품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연간 7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앞서 한국알프스㈜는 지난 5월16일 광주 'KBI하남' 지식산업센터 내 2천78.47㎡(628평)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첨단소재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공간으로 활용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광주시에 재투자한 첫 사례"라며 "인재 걱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고 인공지능(AI)·미래차·반도체 중심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20일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 한국알프스 생산시설 증설 준공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규남 한국알프스 대표이사,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서남권 SOC 新프로젝트 속도낸다

道,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전남형 트램' 용역비 확보

전남도가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말 발표한 '전남 서남권 SOC 신(新)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2조7천900억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과 4천억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하당-남악·오룡신도시 간 전남형 트램 구축을 위한 사전검토 용역비 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도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7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와 영암 F1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잇는 아우토반과 영암-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2.5㎞)는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대응한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또 전남형 트램의 경우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을 검토한 뒤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은 "전남지역 발전의 큰 축인 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SOC 프로젝트를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의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광주시의원 일동은 20일 "미래자동차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는 연간 72만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로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의원들은 광주시가 진곡산단을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생산 거점으로 삼고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활용할 계획인 점, 미래차 국가산단을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인프라)을 갖춘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시의원들은 "광주는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연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체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뒷받침할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민주 전남도당, 박정식 사무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0일 "신임 사무처장에 박정식(58·사진)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 출신인 박 사무처장은 민주연구원에서 14년 간 민생 정책입법 과제 수행과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 등을 추진해 왔다.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당의 정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정식 사무처장은 "민주당 본산인 전남도당이 지역민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며 "지역 현안 파악과 정책 개발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